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탈출17,3-7
 [화답송] 시편95(94), 1-2.6-7ㄱㄴ. 7ㄹ-9(◎7ㄹ과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어서 와 앞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5,1-2.5-8
 [복음 환호송] 요한4,42.15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음] 요한4,5-42<또는4,5-15.19ㄴ-26.39ㄱ.40-42>

성가	8시 미사	입당 116	봉헌 510 220	성체 179 182	파견 115
	11시 미사	입당 116	봉헌 510 220	성체 179 182	파견 115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3주일(3월 23일)		사순 제4주일(3월 30일)		사순 제5주일(4월 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황테레사(혜정)	이바로로(명국)	이마리크레센시아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강요한(신호)	구미카엘(창희)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김테레사(승희)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거울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라스베가스(Las Vegas)’입니다. 그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사람이 그 도시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가고 싶어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런 도시가 세워진 것도 신기하고, 한 번쯤 꼭 가고 싶은 ‘꺼리’들로 가득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많은 즐거운 재밌거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쇼, 공연, 쇼핑 거리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홀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발목을 확 휘어잡는 것은 역시 ‘카지노’입니다.

분수 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이나 화산 쇼를 보여 주는 미라지 호텔 등 많은 호텔이 카지노장을 아주 커다랗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지노들이 여러 가지 도박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모든 카지노 안에 세 가지가 공통으로 없답니다. 바로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지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그것들이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카지노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즉 얼마나 자신이 놀이 혹은 노름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자신의 참담한 몰골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시계를 들여다보아야 지금이 자야 할 시간이며 내일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깥을 내다보아야 어떤 공간에 갇혀 쳇바퀴 돌듯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인에게 사순기간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지요. 거울은 자신의 외모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어떤 거울이 필요할까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 여러 좋은 강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TV에서 했던 강연들인데 그런 강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강의를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백수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책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게 되면서 자신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강연의 끝자락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책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책을 접할 때, 책의 내용이 이러니저러니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책을 거울삼아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왜냐

면 책은 거울인데 그 거울 탓을 하기에 앞서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곰곰이, 그리고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동안 책을 통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책’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책에 대한 자세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책을 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글의 깊이가 있는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글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젠 어떤 책을 들어도 그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 비춰본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해진 것이죠. 심리학책을 읽으면 그 책에 비추어진 나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관한 책을 통해서 나의 대인관계의 모습을, 영성 서적을 읽을 때는 나의 영성 생활에 관한 부분을 비추어 보는 거울을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지요. 사순시기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기입니다.

김승욱 베드로 신부
인천교구 부평2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물 길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허하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를 소개할 때 ‘전(前) 국회의원’ ‘전(前) 모대학 학장’ 하는 식의 소개 법은 그 사람의 ‘현재’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과거’ 만을 회상하게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찬양하느라 정작 지금의 삶에 소홀한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방 ‘시카르’ 라는 고을에 있는 우물은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천이백 년 전에 파놓은 우물로 오랜 전통뿐 아니라 대대로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쉬지 않고 채워주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사연과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는 ‘위대한 우물’ ‘자부심의 상징’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곳을 매일 찾아오는 한 사람,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한 여인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예수님은 꿰뚫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마을 사람들이 천 년이 넘도록 마셔온 이 물이 지금 그대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풀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나? 나도 아프다.” 라는 드라마 대사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 대사처럼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또 “안녕들 하십니까?” 란 질문에 “난 안녕하지 못하다.” 고 아우성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아픔과 갈증의 현상에 때마침 ‘힐링 열풍’ 이 불면서 모 교수님은 ‘청춘은 당연히 아픈 것’ 이라 하고, 또 어떤 구도자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라.’ 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멘토링과 위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아픔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은 2천 년의 역사 동안 세월의 풍파를 거쳐 왔고, 그것의 깊이와 수량의 풍족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우물이 우리들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통의 힘을 바탕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자신 있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랑만 해왔지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오래된 신앙의 우물이 나

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그물을 직접 길어 올려 목말라하는 세상을 적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물 길는 자들입니다. 아마 세상이 목이 타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물 길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요한 4,15 참조)

이명찬 신부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하느님,
순간순간 당신 사랑을 이야기 하고
숨 쉴 때마다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되새기게 하소서.

글_ 성 요한 비안네

말씀의 향기

일어나 비추어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는 8월 우리나라에 오신다는 공식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처음 떠오른 것은, 30년 전 5월 4일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집전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뵈고, 그 파란 눈동자와 저의 검고 큰 눈이 마주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관구 세 분 주교님들과 함께 일흔두 명의 예비자들에게 신앙의 첫 성사를 베풀면서, 복벽의 3개 교구를 포함한 17개 교구를 상징하는 열일곱 명에 대해서는 교황님이 직접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는 선배 방송인 대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교황님 앞에서 있었는데, 순간이었지만 맑고 깨끗한 그분의 눈은 사랑이 가득했고, 오직 저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누구와 악수를 하면서도 눈길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는 교황 방문 10주년을, 2013년 리투아니아에서는 교황 방문 20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103위 한국 순교복자들의 시성 30주년인 동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교회 사목방문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복자 교황님은 당신께서 제정하신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부활 제2주일에 요한 23세 복자 교황님과 함께 성인으로 선포되십니다. 그분과 관련 있는 뜻 깊은 일이나 기도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사가 겹친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맞이해서 124위 순교자들의 시복식을 거행하고,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며, 교황님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황님의 방한 일정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살아가는 ‘꽃동네’ 방문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와 어린이들, 미혼모와 그 아이들,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채 가슴을 뜯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4)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번 교황님의 방한은 “일어나 비추어라.”를 주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한 이 성경구절을 음미하면서 이 땅의 거레를 비추는 하느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언제나 누리고 싶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거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라.” (이사 60,1-2)

최홍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전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전례상시

십자가의 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의 신비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로써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생활성서

가톨릭전례

셋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의 주 하느님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탈출 20,8-10)

1) 안식일

셋째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쉬어라’ 에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 등의 권고에 익숙해 있는 우리로서는 ‘쉬어라’ 는 계명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셋째 계명의 독특함이고, 깊은 영성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한 출애급 사건을 배경으로 해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파라오를 섬기지 않고,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섬길 때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쉬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쉬는 것이 뭐가 힘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 을 할 때는 ‘자유로운 휴식’ 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유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새로운 종살이를 하기 쉽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노동의 이중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노동의 긍정적 측면을 칭송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은 노동에 얽매어(더 일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제 개발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버렸고,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 나고, 오로지 일만하고 소유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극복

하기를 꿈꾼다면 “주 하느님 앞에서 쉬어라” 라고 외치는 셋째 계명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주님의 날

이스라엘이 지키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신자들은 안식일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일요일)을 주님의 날(목시 1,10)로 삼고 거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셋째 계명의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화시킨 정도가 아닙니다. 셋째 계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세부 지침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의 금지 조항이 678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안식일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들에게 부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원정신을 되살리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마르 3,4)

또한 구약의 안식일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했지만, 신약의 주일(主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주일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3월23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p><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8시</th> <th>11시</th> <th>영어미사</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미사참석인원</td> <td>82</td> <td>227</td> <td>35</td> <td>344</td> </tr> <tr> <td>헌 금</td> <td>\$507</td> <td>\$1,463</td> <td>\$54</td> <td>\$2,024</td> </tr> </tbody> </table> <p>< 교무금 > \$3,260 김관숙(3) 권영현(3-4) 김종란(1-6) 유한섭(1-3) 송동기(10-12/13) 이상우(1-6) 김세록(1-3) 원광희(1-4) 김명환(1-3) 이인학(1-3) 최몽렬(2-3) 김종성(3-4)</p> <p>< 성소후원금 > -</p> <p>< Bishop's Appeal > -</p> <p>< 감사헌금 > -</p> <p>< 부활초/꽃봉헌 > 구해순 \$50 조선덕 \$100</p>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2	227	35	344	헌 금	\$507	\$1,463	\$54	\$2,024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2	227						35	344													
헌 금	\$507	\$1,463						\$54	\$2,024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문요셉(정법)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조바오로/분다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준기	이시몬/율리엠타																				
	생 본당신부님부임축하	정미카엘(규동)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박요한(종영)	성루카																				
	생 박요한(종영) 쾌유	정미카엘(규동)																				
	생 유데레사	이골롬바																				
	생 유데레사	익명																				
	생 유데레사	조바오로/분다																				
	생 유데레사	김제랄드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생 주요셉/마리아가정	조안젤라(난순)																				
	생 이요한(준섭) 쾌유	정미카엘(규동)																				
3월25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전데레사(정희)	가족																				
3월26일 수	연 이스테파노(상준)	김데레사																				
	생 유데레사/김유릿다	안나회																				
3월27일 목	생 유마리아(혜선)	염파트리샤																				
	생 서아가다	서데레사																				
3월28일 금	생 유데레사	순교자의 모후																				
3월29일 토	연 최베드로(휘종) 기일	가족																				

~~~~ 오늘 간식은 변귀태 성우안토니오/이상준 스테파노 가정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3월 26일(수) 아침미사는 장례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합동판공성사 : 4월 8일(화) 저녁미사 후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기체초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사목회의 : 3월 30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회의실  
\* 본당 ME 모임 : 3월 30일 교중미사 후 사제관 앞방  
\* 요아킴/안나회 : 4월 6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프란치스코 모임

4월 6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40대 초반 ~ 50대 초반 형제님(부부동반)  
연락처 : 510-566-2175/510-789-3949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3월 23일(오늘) 중식 후 성당  
대상 : 레지오 전단원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3월 27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봉사 활동 안내**

|                |            |                  |
|----------------|------------|------------------|
| 3월29일(토)10시-5시 | 화단정리       | 평협소속회원 및 희망 봉사자  |
| 3월30일(일) 오후    | 화단정리 및 대청소 | 평협소속회원 및 봉사단체 회원 |

**3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2장**

|       |             |                   |
|-------|-------------|-------------------|
| 2 구역  | 3월29일(토) 6시 | 이상주 카타리나 맥        |
| 5 구역  | 3월30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7-1구역 | 3월29일(토) 2시 | 파운더스 룸            |
| 8-1구역 | 3월30일(일) 1시 | 교육관 106호실         |
| 8-2구역 | 3월29일(토) 6시 | Four Corners Room |
| 9 구역  | 3월29일(토) 6시 | 구태영 요셉 맥          |
| 10 구역 | 3월30일(일)미사후 | 교육관 107호실         |

◆ 본당 봉사자 지문 날인(오클랜드 교구 의무사항)

일시 : 4월 6일(일) 오전 9시 ~ 11시  
스케줄 : 모든 사목위원 9시 ~ 10시  
주일학교 교사 10시 ~ 11시

◆ 재활용 물건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일시 : 3월 30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가능한 물품 : 옷, 신발, 지갑, 벨트, 침대보, 이불 등  
주관 :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참고 : [www.thelittlevoiceproject.org](http://www.thelittlevoiceproject.org))

◆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 연수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1시 ~ 6월 1일(일) 오후 5시  
대상 : 창세기 과정을 마친 분들  
참가비 : \$120  
장소 : Vallombrose Center, Menlo Park  
신청 : 백승진 미카엘 [sjbaek@gmail.com](mailto:sjbaek@gmail.com)

◆ 문상예식/장례미사 안내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이 3월 19일 선종하셨습니다.  
문상예식 : 3월 25일(화) 저녁 미사 후  
장례미사 : 3월 26일(수) 오전 11시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3월 29일 : 한국어 SAT 모의고사  
- 4월 5일 : 양로원 방문(Diamond Care)  
- 4월 12일 : 북가주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